



내 남자가 바람났다의 저자

송강희의 누·드·토·크

아내 아닌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 그러더군요. 사랑하는 감정이 사람 맘대로 되는 거냐고, 나도 나를 어쩔 수가 없다고, 나도 힘들다고-

'사랑의 감정은 어쩔 수 없다/ 외도도 사랑이다/ 고로 외도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논리구조인 거 같습니다. 한술 더 떠, '사랑은 아름답다/ 외도도 사랑이다/ 고로 외도도 아름답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사랑- 참 이상한 분들에게 걸려서 고생 많이 합니다.

외도를 논할 때 사랑의 탈을 씌우면 참으로 그럴싸해 보이죠. 비련의 요소도 첨가되고, 불가항력의 냄새도 피우면서, 나이들어든 무대지 없는 감성과 아직까지 죽지 않은 자신의 이성적인 매력까지 살짝 자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불륜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정신 살짝 가출하신 분도 계시더군요.

사랑이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시니,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다른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지요. 인간은 배설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배설을 참는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쩌면 사랑을 억누르는 것보다 더 힘

든 일일겁니다. 그렇게도 어려운 일이지만 광화문 큰길가에서 대변보는 사람 없습니까. 초등학교 정도의 나이만 되어도, 배설을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하지 다 압니다. 똑같은 배설행위지만 화장실에서 하는 것과 대변에 광화



문 한복판에서 대변을 보는 것이 다르다는걸 알지요. 광화문 큰길을 오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 대변 마려운 분들을 봅니다.

하지만 다를 참입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가지요. 배설해야하는 욕구는 화장실에서 처리하면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하지만 광화문 한복판에

외도, 배우자를 배신하는 치졸하고 비겁한 행위

서 그런 것 하면 문제가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한 사람과 하면 아름답습니다. 사랑을 두사람과 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탈을 쓴 거짓말이고 배신이고 아주 추한 것이지요.

외도에 사랑의 탈을 씌우면 참으로 그럴듯해 보이지요. 그러나 외도는 광화문 복판에서 똥마렵다고 바지내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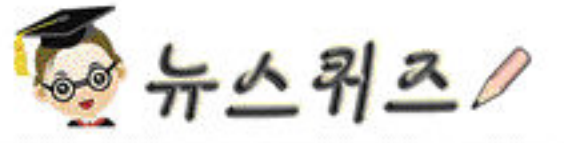
사랑은 상대를 책임지는 행위이고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사랑하다가 헤어지는 날이 오더라도, 헤어지는 그날까지는 손절을 지키고 상대를 책임지고 그 상대와만 하는게 사랑이지요. 뭐라고 갖다 붙여도 외도는 사랑의 본질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일입니다.

외도는 무책임한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배설행위이고 배우자를 배신하는 치졸하고 비겁한 행위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배우자의 등에 칼을 꽂는 일이지요.

외도에 사랑의 탈을 씌워서 논점을 일탈하고 범주를 넘나들면 안됩니다. 이렇게 논구술 하시면 대학 못갑니다. 외도가 사랑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어쩔 수 없다고 우기는건, 광화문 한복판에서 대변을 보는 것이 인간의 참을 수 없는 생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외지로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심각한게 있다면, '범죄'에 대해 '범죄라는 자각'이 없는 것입니다. 결론해도 다른 이성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살다보면 외도할 수도 있지요. 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외도해도 된다고 해서 허락하면 곤란합니다. 한술 더 떠, 외도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면 답 없습니다.

외도는 사랑을 어찌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아니고 거짓말로 점철된 정조박약, 지조불 건전한 행위입니다. 광화문 한복판에서 똥 마렵다고 바지 내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48.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한 가마니(80kg)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곡 연도(2005.11~2006.10)의 가구 부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의 경우 2001년 88.9kg에서 2003년 83.2kg, 2005년 80.7kg 으로 감소 추세속에 서도 80kg을 웃돌았지만 지난해 80kg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얼마나 될까요. ① 78.8kg ② 80.7kg ③ 90kg ④ 100kg

참어 방법 /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디지털카메라 1대, 2위 무등과코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문매체부 쿼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검색절정 키워드

아역 탤런트 출신 인기 가수 유니(본명 허윤여·26)의 자살 소식이 무더기 클릭 세례를 받으면 인터넷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유니는 지난 21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경찰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니가 인터넷에 올린 악의성 댓글로 우울 증세가 심해져 자살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면서 악플 자동 운동을 벌이자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또 조문객도 거의 없이 장례식이 쓸쓸하게 치러진 뒤 가수 김진표가 미니 홈페이지에 "매날 방송국에서 훈련받은 기계 인간 고개 숙이고 소리 높

악플과 우울증이 부른 유니의 자살 네티즌 충격

여 인사하는 예의바른 가수를 왜, 장례식장까지는 갈 시간이 없었던 거야"면서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결혼식 축하는 마다 않고 가는 사람들이 왜 자신의 동료를 떠나보내는 자리에는 오지 않는 거야"라며 쓴소리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잔혹 동화도 인기 검색어에 올랐다. 지난 1999년 일본 소설 '알고보면 무시무시한 그림동화'의 유행으로 붐을 이룬 잔혹동화가 다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것이다. 잔혹 동화는 잘 알려진 동화를 기본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잔인하게 각색한 것으로, 일부 청소년들은 읽는 수준을 넘어 자신만의

동화를 직접 쓰고 공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검색어에 올랐다.

예컨대 백설공주가 아름다운 왕비를 시기에 살해하거나 정신분열에 걸린 신데렐라가 계모를 둔기로 때려죽인다는 식의 엽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연예계 공인 커블인 이정재-김민희 결별 소식도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03년 한 이 동통신사 CF촬영장에서 첫 만남 뒤 이듬해 당시 연예인으로서는 드물게 열애 사실을 공식 선언하며 공개 데이트를 즐겨왔지만 3년 만에 관계를 정리한 것. 연예인들의 결혼·열애 소식도 잇따르면서 이들

에 대한 검색 빈도도 높았다.

지난 23일 9살 연상 사업가 최병호(50)씨와 결혼식을 올린 개구리먼 이경실(41), 통닭네기 재일교포 회사원과 결혼식을 올린 정선경(36)씨, 오는 27일 결혼식을 올리는 탤런트 왕빛나(26)와 예비신랑 프로골퍼 정승우(32), 오는 3월 1일 결혼식을 올리는 '주몽'의 혜적두목 탤런트 윤용현(38)과 9세 연하 피아노 연주자 박수진(29·순천시립합창단)씨 등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다.

주간 금상송 검색어

Table with 2 columns: Rank, Search Term. 1. 유니 자살, 2. 잔혹동화, 3. 요코이치기, 4. 새 지혜, 5. 황우석의실적, 6. 이종국, 7. 정선경 귀비결혼, 8. 지진, 9. 이정재 김민희 결별, 10. 이경실 결혼

Go board game diagram showing a 19x19 grid with numbered stones and a list of numbers from 1 to 105.

Go board game report for a 6th dan match between Hong Seok and Kim Jongmin. Includes commentary on the game and a list of numbers from 1 to 105.

Go board game report for a 9th dan match between Park Jeong-sang and Maek Shim-bee. Includes commentary on the game and a list of numbers from 1 to 105.

Horoscope section titled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Knowing the Fate of Today's Fortune). Lists horoscopes for various zodiac signs and dates.

굿모닝 잉글리쉬 <827>

English lesson content for 'I can't do it'. Includes a dialogue and a list of numbers from 1 to 105.

오하이오 니혼고 <827>

Japanese lesson content for '急に眠気が襲ってくる'. Includes a dialogue and a list of numbers from 1 to 105.

니하오 쑹구위 <18>

Chinese lesson content for '我们俩同岁'. Includes a dialogue and a list of numbers from 1 to 105.

한자 이야기 <445>

Character story content for '豹變 (표변)'. Includes a dialogue and a list of numbers from 1 to 105.

Advertisement for Dermoplast skin care product.